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의 극복과 ‘교양’의 의미

- 석북 신평수의 <劔僧傳>을 중심으로 -

정인혁*

— <차 례> —

1. 서론
2. 검승의 이야기로 재구성된 임진왜란
3. <劔僧傳>에 재현된 전쟁의 상처와 정신적 외상
4. 이야기하기를 통한 상처의 치유
5. 정체성의 확립과 ‘교양’의 의미
6. 결론

<국문초록>

‘자유인’으로서의 인간은 제도와 신념, 이데올로기에 종속되기를 거부한다. 자율적인 사고는 교육을 통해 지적이고 정서적인 도덕적 자질과 덕성을 갖출 때 가능하며, 이를 ‘교양’이라 한다. 따라서 ‘교양’은 ‘인간성의 교양’이며 ‘자유인(free-man)의 의지’이다. 반면 경제와 정치, 인종과 민족, 이념과 종교 등에 예속된 인간들이 같은 인간을 도구로 삼아, 인간을 대상으로 벌이는 극단적인 비이성적 행위가 바로 ‘전쟁’이다.

본고의 목적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석북 신평수의 <검승전>을 대상으로 전쟁이 인간에게 안긴 상처와 트라우마를 살피고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하기)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나아가 인간성의 교양을 위한 교양 텍스트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폈다.

<검승전>의 검승 이야기는 신돈복의 <학산한언>에도 전해진다. <학산한언>에 수록된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는 실제 인물 맹주서가 금강산에서 만난 승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검승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검승을 바라보는 초점화자가 실제 인물이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검승전>의 경우에는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객으로 초점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건 및 인물의 허구적 재구성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검승전>은 임진왜란을 겪은 검사와 검승, 그리고 검왜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 상처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 주목하게 함으로써 서술자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검승의 스승, 검사는 뛰어난 무술 실력에도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우지 않고 산 속에 은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자신이 선택했음에도 분노는 해소되지 않는다. 더욱이 자신이 살려준 왜인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그의 분노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함에서 비롯된 존재론적 불안을 보여준다. 검사의 존재론적 불안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다. 자신과 다른 타인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구별하여 배제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에서 온전한 소통의 관계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검승전>은 검사와 검승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 뒤에 도사리고 있는 조선사회의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교양’ 텍스트인 것이다.

주제어 교양, 임진왜란, 초점화, 정체성, <검승전>

1. 서론

재일조선인 학자 서경식이 일본의 실천하는 지식인이라 일컬어지는 카토 슈이치, 노마 필드등과 함께 저술한 『교양, 모든 것의 시작』에서 ‘교양’은 ‘자유인(free-man)의 의지’라 요약된다. 여기에서 ‘자유인’이란 개인이든 집단이든 타인, 또는 그들이 만든 제도와 어떤 신념,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자유인은 자유의지가 없는 부품처럼 기계화되거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짐승처럼 야만화되기를 거부한다.¹⁾ 그러므로 이때 ‘교양’은 ‘동물적인 상태에서 사람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교육을 통해 성취하게 되는 지적이며 정서적인 도덕적 자질

과 능력, 덕성²⁾을 의미하며 헤르더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성의 교양'이 곧 '교양'인 것이다.³⁾ 교양은 자유인으로서의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며, 동시에 인간은 교양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인일 수 있다.

반면 경제와 정치, 인종과 민족, 이념과 종교 등에 예속된 인간들이 같은 인간을 도구로 삼아, 인간을 대상으로 벌이는 극단적인 비이성적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던 당시 아우슈비츠로부터 생환한 프리모 레비는 그 공간을 인간성의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뒤집힌 세상이었다고 기술하였다. 기적적으로 생환한 프리모 레비가 지옥과도 같은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다음의 시 한 구절이었다고 술회한다.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생각하라.
그대들은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과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태어났도다.

이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노래이다. 물론 단테의 『신곡』 속 시 한 구절이 수용소에서의 굶주림과 추위, 폭력과 강제노역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눈앞의 적군을 제거해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로 하여금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교양'이었던 것이다.

'교양'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점을 좀 더 크고 넓은 세상

1) 서경식·노마 필드·카토 슈이치 공저, 이목 역, 『교양, 모든 것의 시작』, 노마드북스, 2007, 171~172쪽 참조.

2) 손동현,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관계」, 『인문과학』 제37집, 207~208쪽.

3) 김종현, 「막스 셸러 교양개념의 인간학적 의미」, 『汎韓哲學』 제18집, 50쪽.

과 역사 속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당장에는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실은 한계와 약점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폭력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된다. 인간성이 부정되고 죽음만이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이 무엇에 포박되어 있는지, 어떤 사회구조 아래 붙들려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⁴⁾ 역설적으로 전쟁이라는 비극은 어쩌면 인간성의 고결함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다. 전쟁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정신은 고양된다.⁵⁾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단테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읽고 지혜와 용기를 얻었듯이, 단테의 이야기를 읽고 프리모 레비가 다시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성을 지켰던 것처럼,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교양은 이야기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전해진다. 이야기(하기)를 통해 지나간 일들을 재현하는 역사는 자신과 자신이 겪은 사건을 타자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보다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인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로써 인간은 종종 짐승과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짐승과 달리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의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양’의 힘이다.

석북 신흥수의 <劔僧傳>⁶⁾은 조선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쟁,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석북 신흥수의 <검승전>을 통해 전쟁 속 인간의 상처와 정신적 외상의 극복 양상을 살피고 임진왜란

4) 서경식 외, 앞의 책, 172쪽.

5) 칼 심스, 김창환 옮김, 『해석의 영혼 폴 리콰르』, 엘피, 2009, 128쪽.

6) <검승전>에 대한 연구로는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이기현,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보고서, 1996, 정하영, 『<검승전>의 인물형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집, 2002, 정인혁, 『<劔僧傳>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16집, 2007 등이 있다.

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검승전>의 의미를 교양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승전>이라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이야기화'되고 있는가를 살필 것이다. 나아가 '이야기(하기)'로서의 '역사'와 교양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검승의 이야기로 재구성된 임진왜란

<검승전>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정예병으로 출전하였다가 조선에서 중이 된 검승을 입전한 작품이다. 먼저 이야기의 대강을 단락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임진년으로부터 오십여 년 후, 오대산에 독서하는 객이 있었다.
- ② 나이 팔십이 되어 보이는 중이 있었는데 정기가 굳세고 영민하였다.
- ③ 중은 객이 독서하는 소리를 즐겨 듣더니 서로 친해졌다.
- ④ 하루는 중이 스승의 기일이라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 ⑤ 중은 제를 올리며 통곡하였다.
- ⑥ 객이 그 소리를 듣고 이유를 물었다.
- ⑦ 중이 자신은 일본인임과 가등청정의 특별부대원으로 뽑혀 조선에 들어온 내력을 이야기하였다.
- ⑧ 중이 속한 특별부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진격하였다.
- ⑨ 높은 암석 위에 홀로 앉아있는 조선 사람을 만났다.
- ⑩ 왜군 특별부대가 바위를 둘러싸고 총을 쏘아댔다.
- ⑪ 그 사람은 검을 휘둘러 탄환을 모두 막아냈다.
- ⑫ 그 사람이 날듯이 내려와 왜군의 목을 베니 죽지 않은 자는 중 자신과 한 왜인뿐이었다.

- ⑬ 그 사람이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인지 물었다.
- ⑭ 중과 왜인은 그 사람을 좇아 산에 들어가 검술을 배웠다.
- ⑮ 스승과 제자, 삼인은 짧게는 삼 개월, 길게는 일 년에 한 번씩 산에서 거처를 옮기며 살았다.
- ⑯ 세 사람은 매일 검술을 익히는데 칼춤을 추며 분노를 뿜어내고야 검술을 거두었다.
- ⑰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검사는 왜인들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
- ⑱ 십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왜인이 스승의 목을 베었다.
- ⑲ 왜인이 원수를 갚았으니 함께 일본으로 탈출하자고 하였다.
- ⑳ 중은 왜인을 죽여 스승의 원수를 갚았다.
- ㉑ 중은 스승도 동족도 죽은 상황을 슬퍼하며 자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㉒ 그 뒤 오대산에 올라 중이 되었다.
- ㉓ 말을 마친 중은 객에게 감사해 하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 ㉔ 다음 날 중은 사라지고 없었다.
- ㉕ 논찬

임진왜란 때 왜군으로 조선에 왔다가 조선인 검사의 제자가 된 후 암자에서 스님의 신분으로 숨어살았던 일본인의 이야기는 <검승전> 외에도 『청구야담』 서벽외사 해외수일본의 <맹감사동약문기사>, 『동야휘집』 서울대 가람본의 <시청평위사보구>, 신돈복의 『학산한언』의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 등으로 전해진다.⁷⁾

7) 『청구야담』과 『동야휘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제작 시기도 늦거나 『학산한언』의 것을 그대로 전제한 것에 가까우며, 오히려 『학산한언』의 것에는 있는 내용, 즉 맹주서가 이후 검승의 죽음을 전해들었다는 내용과 검승 관련 <임진록>의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학산한언』의 것을 <검승전>의 비교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학산한언』은 김동욱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본고의 번역문은 원문과 비교하여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를 따랐다. 원문에는 원래 표제가 없는데, 김동욱이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라 한 바, 이하 본문에서는 편의상 『학산한언』에 실린 텍스트를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라 하기로 한다.

<검승전>과 이들 작품들 간에는 내용 상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몇몇 차이를 보인다. 첫째, 검승의 임란 출전 내력이 다소 상이하다. <검승전>의 검승은 가등청정의 선봉부대로 본국에서 가려뽑힌 삼천 정예병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지만, 그 외의 작품에서는 대마도주에 의해 뽑힌 여덟 첩자 중 하나로 나타난다. 둘째, 검사와의 싸움 결과가 다르다. <검승전>의 경우, 삼천에 달하는 정예 병사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검승과 한 왜인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 작품에서는 여덟 중 다섯이 죽고 검승을 포함하여 세 왜인이 살아남는다. 셋째, 검사가 왜인을 살려준 이유가 다르다. <검승전>에서는 원수이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 없다고 하는 반면, 그 외 작품에서는 비록 그들이 원수이지만 그 재주를 아껴 이후 왜적의 침입 때 들어 쓰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검승전>에는 없는 검승 관련 <임진록>의 기록을 『학산한언』이 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나름대로 이야기의 실제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반대로 <검승전>은 다른 작품에 비해 사실기록으로서의 서술의식보다는 허구화의 경향이 높은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허구적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이 초점화자의 문제이다.

모든 이야기는 일종의 '시각' 또는 '프리즘'의 중재를 통해 텍스트에 제시된다. 즉 말해지는 것과 별도로, 대상을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를 초점화라 한다.⁸⁾ 이때 초점화자는 보는 주체, 그리하여 의식하고 판단하는 주체이다. <검승전>을 제외한 작품의 경우에는 검승을 만나고 그의 내력을 듣는 인물이 1654년(효종 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부사, 충청도관찰사, 예조참의 등을 지낸 맹주서(1622~?)인 반면, <검승전>에는 이름 모를 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점이다.⁹⁾

8) S.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6, 109쪽.

9) 줄고, 「<검승전>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

감사 맹주서는 산수 유람을 좋아했는데, 일찍이 젊어서 금강산에 들어가 살살이 찾아다니더니 그윽하고 깊숙한 곳에 이르렀다.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매우 정결하였다.¹⁰⁾

〈검승전〉

임진왜란 후 오십년이 흐른 때에, 오대산에서 독서하는 객이 있었다.¹¹⁾

초점화자가 실제 인물이고 그가 목격한 실제 인물의 경험을 서술할 때, 그의 경험과 그가 보고 겪은 대상은 그가 경험한 대로, 기록된다. 즉 실제 했던 맹주서로부터 진술된 금강산 암자에서 만난 검승에 관한 정보 역시 그로부터 들은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초점화자가 이름 모를 객으로 설정된 경우, 어쩌면 그가 보고 들은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심지어 만약 그것이 허구적 존재라면 허구적 존재에 의해 초점화되는 대상 역시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즉 사실 그대로 기록할 때보다 재구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동시에 목격자인 초점화자보다 서술되는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욱 짙게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²⁾ 따라서 이야기 속 인물 역시 서술자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다.

2007, 참조.

10) 孟監司胄瑞愛山水遊. 少時嘗入楓岳, 窮探至幽處, 深有一庵極精潔. 장서각 소장 『野乘』 21책, 44a, 이하 쪽수만 표기. 번역문은 김동욱 역, 『국역 학산한언』 1, 보고서, 2006 참조. 이하 동.

11) 壬辰後五十餘年, 客有讀書五臺山者.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사, 2005, 652쪽. 이하 쪽수만 표기.

12) 그렇기 때문에 입전인물인 검승이라는 대상에 대해 기록하고 논평하기보다 그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기서사’의 특성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같은 글 참조.

검승이 중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검승전>에만 자세하게 나온다. 하루 아침에 믿었던 동족 때문에 스승을 잃고 하나뿐인 동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검승이 자살을 하려고까지 하였으나 그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담담히 고백하는 검승의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회한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검승전>과 달리 다른 작품들에서는 검왜들을 죽이고 중이 되었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그친다.

<검승전>

저는 스승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검을 뽑아 또한 그 왜인의 머리를 찢습니다. 오오, 저와 그 왜인은 유일한 동족이거늘, 같은 스승을 모시고 수십 년을 지냈으나, 그 날 밤 품은 음험한 적살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승의 원수를 갚고, 생각하기를, '우리 세 사람은 아비 자식 같고 형제와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길에서 스승을 잃고 또 동쪽에서 온 삼천 명의 왜인 검객 가운데 나와 함께 유일하게 남았던 왜인을 내가 죽였으니, 천하에 나 혼자뿐이로다. 일본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만 리 땅, 낮은 곳에서 살아감에 또 많은 두려움이 있으니,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갈꼬?' 마침내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나는 일본인이다. 동해에 뛰어들어 죽어야겠다.' 동쪽으로 가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큰 바다 물고기가 싸우고 있었는데 그 틈에 큰 파도가 나를 말아 해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올라 중이 되었습니다. 술잎만을 먹으며 살기를 사십년 동안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매해 스승의 기일이 되면, 일찍이 곡을 하여 실성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¹³⁾

13) 老僧目見師遇害，狼發劍，亦立斷其倭頭。噫！老僧與其倭，俱倭耳，同師數十年，不知其日夜內懷陰賊心也。既報師讐，念：‘吾三人，若父子兄弟，一朝塗喪師，又劍倭東來三千，吾兩倭在爾，吾殺其一倭，顧天下一身已。日出限漲海萬里，居異國，又多畏，吾獨生何爲？’遂大哭，欲自殺。又念：‘我日本人也。投東瀛而死。’東走瀛自投，會海大魚鬪，鼓浪卷落海岸，不能再投。卽上五臺爲僧，食松葉四十年，不下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

마침내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찢러 모두 죽이고, 이 산에 들어와 중이 되었지요.¹⁴⁾

전자가 후자보다 검승이라는 인물의 중이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검승이 느꼈을 인간적 고난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는 바, 이 또한 실제 인물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기보다 서술자의 입장에서 개성 있는 인물로 재구성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승전>은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보다 상대적으로 서술자가 재구성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검사의 행위에 대한 의문이 <검승전>을 제외한 작품에서는 맹주서에 의해 검승에게 질문되고 검승이 직접 대답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반면, <검승전>에서는 논찬 속에서 서술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

맹공이 듣기를 마치고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하며 말하길, “존사의 밝은 식견과 빼어난 용기로도 두 사람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모르시고 끝내 해를 당하게 되신 것은 어떤 일인지요?”

“저희 스승님께서 어찌 두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의 재주를 아끼셔서 깊은 은혜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서 그 힘을 얻으려고 하셨던 거지요. 또한 그분의 지혜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¹⁵⁾

山, 每歲師死日, 未嘗不哭失聲.(654~655)

14) 遂前刺兩人皆殺之, 乃於此山爲僧(45b)

15) 孟公聽罷 不勝感歎曰 以尊師之明識神勇 乃不知兩人者懷不利之心 而終至見害何 僧曰 吾師 豈不知兩人非吉人 而愛其才 欲以深息 得其死力(45b)

〈검승전〉

그러나 검사와 함께 했던 두 왜인은 십 수 년을 함께 했으므로 가히 마음
 씬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는 적이 되고, 하나는 자식과 같아서, 곁에
 있다가 마침내 길에서 적에게 스스로 죽임을 당했으나, 몸을 보호하는 데에
 는 밝았으나, 사람을 아는 것에는 어두웠도다. 소위 선표가 안을 길렀으나
 그 곁은 호랑이에게 먹힌 격이로다. 고로 맹자가 이르기를, '예 또한 죄가
 있도다.'라고 한 것이다.¹⁶⁾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에서 이 질문은 맹주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대답은 검승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다소
 문제점이 발견된다. 사실 맹주서의 질문에 대한 검승의 답은 본질을 조금
 빗나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답은 되었으되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가 밝은 식견을 갖고도 두 검왜의 적심을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검승은 알면서도 '은혜로써 그 재주를 얻으려 했던 것이며 지혜로
 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정작 검승은 그들의 마
 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으며 그들의 모해 시
 도를 제압하지도 못했다. 맹주서의 질문에는 답도 되지 않았는데, 도리어
 검승은 스승이 자신을 아꼈다며 자찬하고 있다. 맹주서의 질문은 답변되
 지 않고, 이야기의 화제는 검승의 검술 실력으로 넘어간다.

실제의 대화를 옮겨놓은 듯 〈금강산의 기이한 승려〉의 두 인물 간의
 대화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 반면, 〈검승전〉의 경우는 서술자
 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해석을 서술한다. 검사에 대한 무한한 존
 경과 사랑과 그리움에 사로잡힌 검승과 그를 목도하고 있는 인물에 속박

16) 然劒師與二倭，處十數年，亦可以知心術矣，一爲賊，一爲子，而肘腋之，卒以其道，
 授賊自戕，明於保身，闇於知人，殆所謂單豹養內，虎食其外者耶。故孟子曰：‘羿亦
 有罪焉。’(655)

된 초점화자는 배제된다. 서술자에게 있어 검사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는 밝았으나 사람을 이는 것에는 어두웠던 인물인 것이다. 요컨대 <검승전>은 검승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방식으로 전유하여 재구성한 텍스트이다. 이 구성 작업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과거의 실재성이 재-구성(recon-structing)되는 것이다.¹⁷⁾ 이로써 임진왜란이라는 역사가 현재에 재실행된다.

3. <검승전>에 재현된 전쟁의 상처와 정신적 외상

<검승전>의 세 인물들, 곧 입전인물인 검승과 그의 조선인 스승인 검사, 그리고 검승과 함께 검사의 제자가 되었던 왜인인 검왜 모두 뛰어난 무술 실력을 지닌 자들이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의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의 정예 부대원이었던 검승과 검왜는 일본 내에서도 엄격한 시험을 거쳐 뽑힌 자들이었다.

백보를 날 듯 공격하고 공중의 새를 잡을 정도의 무술 실력 외에도 가족을 두지 않은 스무 살 이하의 어린 병사들은 물불 가르지 않고 전공만을 위해 한 마디 명령에 목숨을 바쳤을 것이다. 그런 왜군에게 무방비의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바닷가 아홉 군을 지나 철령¹⁸⁾을 넘어 내륙으로 진군하는 동안 변변한 저항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그들 삼천 명이 일제히 쏘아대는 조총의 탄환을 앓은 채로 막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그들을 전멸시켰으니 그의 검술 실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파죽지세로 조선을 휩쓸던 혈기왕성한 왜의 정

17) 칼 심스, 앞의 책, 180쪽.

18) 철령(鐵嶺)은 강원도 고산군과 강원도 회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685m이다. 이곳을 경계로 북쪽을 관북지방, 동쪽을 관동지방이라고 한다.

예병 삼천 명을 단신으로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조선 검사, 하지만 그가 두 사람의 왜군을 살려준 뒤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은, 조선군에 합류하여 전쟁에 참여한 것도,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막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두 왜인과 더불어 스승과 제자가 되어 전장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인적 없는 산 속에서 은둔의 삶을 산다.

그 사람은 마침내 검을 닦으며 호령하였습니다. ‘너희들 삼천 가운데 죽지 않은 것은 너희 두 사람뿐이다. 너희 비록 오랑캐이고 나의 원수이나, 또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차마 모두 죽이지는 못하겠다. 너희는 능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대답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명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마침내 그 사람을 좇아 산으로 들어가 수년간 그 기술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스승과 제자 삼인은 팔도 명산을 두루 다니며 매년 한 산에 이를 때마다, 띠를 엮어 집을 짓고 일 년, 혹은 반년 씩 기거하다 문득 버리고 떠났습니다.¹⁹⁾

그들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에게 쫓기더라도 하듯이 깊은 산을 골라 거처를 정했고 그것마저도 길어야 일 년마다 거처를 옮겨 다녔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참기 어려운 거대한 분노였다.

스승과 제자 삼인은 팔도 명산을 두루 다니며 매년 한 산에 이를 때마다, 띠를 엮어 집을 짓고 일 년, 혹은 반년 씩 기거하다 문득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달이 차오르면 혹 깎아지른 정상에 올라 칼춤을 추니 물 흐르듯 부드럽다가 변하여 바위를 내려치고 높은 소나무를 뱀으로써 분노를

19) 其人遂按劍而噀：‘若屬三千，其不殺，若二人已。若雖夷而讐我，亦人已，吾不忍盡之矣。若能順我乎？’曰：‘死生唯命。’二人遂從其人山中，數年盡得其術，師弟子三人，徧游八道名山，每至一山，結茅住一年，或半年，輒棄去。(653)

폭발시키고야 멈추었습니다.²⁰⁾

그들의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자신의 조국을 침략하고 가족과 민족을 죽인 왜군과 그들이 일으킨 전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전쟁을 잊고자 했고 두 왜인을 용서하고자 했다. 그래서 두 왜인을 제자로 삼고, 산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그들의 칼로 바위와 나무를 무수히 베어내어도 그치지 않았다. 전쟁과 전쟁으로 얽힌 원수를 잊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는 것은 그것만이 분노의 원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분노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은 비록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전장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자신이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론적 불안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에게는 뛰어난 무술 실력이 있었다. 왜의 침략에 맞서 싸워 그들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자신의 민족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검사는 산 속으로 들어가 전장에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서술자는 논찬에서 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외사씨 이르기를, “검사는 협객이자 은자로다! 임진왜란 당시, 초야의 용맹하고 굳센 선비들, 곧 홍계남, 김응서 등 많은 이들이 분기탱천하여 적을 막고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검사는 숨어 나오지 않아 공명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다. 왜 그랬는가? 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이들은 임진왜란의 변이 하늘로부터 받은 운수라 구구한 지력으로 가히 그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자고로 지혜와 용기와 이술을 지닌 자들은 변을 면할 수 없었으니, 작은 나라야 더욱 심했던 것이다. 비록 조선의 경우에만도, 남이, 김덕

20) 師弟子三人, 徧游八道名山, 每至一山, 結茅住一年, 或半年, 輒棄去. 秋深月盛, 或登絕頂, 舞劍器淋漓移時, 擊石斷高松, 怒洩乃止.(653)

령 등이 모두 이와 같았다. 고로 검사는 차라리 험준한 산속에서 늙어 죽을 지언정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²¹⁾

검사는 왜의 정예병 삼천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검술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힐 수 없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갈 수 없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존재론적 불안이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원인인 것이다.²²⁾ 그래서 검사는 차라리 그런 현실로부터 숨고자 했으며 서술자는 검사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피 역시 그들의 삶을 편안히 이끄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은둔과 방랑의 삶, 그 가운데 검술의 연마를 통한 분노의 표출은 결국 검사와 검왜의 죽음, 검승의 평생에 걸친 고독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사는 자신이 살려 주고 제자로 연을 맺은 검왜에 의해 목이 베인다. 그러나 그런 검왜 역시 유일한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그 후로 십년, 일찍이 출유하였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허리를 숙여 췌신을 땀 때였습니다. 다른 왜인이 문득 날아오르더니 뒤에서 검을 뽑아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말하기를, '우리 원수가 아닌가? 오늘 되갚았으니, 우리 두 사람, 어찌 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저는 스승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검을 뽑아 또한 그 왜인의 머리를 쳤습니다. 오오, 저와 그 왜인은 유일한 동족이어늘, 같은 스승을 모시고 수십 년을 지냈으나, 그 날 밤 품은 음험한 적살의 뜻을 알지

21) 外史氏曰：「劒師俠而隱者乎！當壬辰之難，草莽勇鷙士，如洪季男金應瑞輩，多奮起捍賊，立奇功。劒士伏而弗出，不欲以功名自顯，何哉？彼有異術，誠知壬辰之變，天數也，非區區智力可弭。自古智勇異能之士，多不免，小國尤甚焉，雖以國朝言之，南怡金德齡皆是已。故劒師寧老岷巖，而弗悔也。」(655)

22) 이는 <검승전>의 주제의식과도 관련이 있는 바, 5장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못했던 것입니다.²³⁾

십 수 년을 스승과 제자로,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함께 살면서도 끝내 검사를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던 검왜의 행동에서 보듯이 비록 살아있기는 했어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전장에서 비껴나 있는 것인 동시에 정상적인 삶에서도 벗어난 있었던 것이다. 산을 내려가면 전장이요, 전장을 벗어나면 살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삶은 그들을 분노로 채운다.

그들은 함께 있어도 사실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셈이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외로운 존재일 뿐이다. 그들 간에 진정한 대화는 없었던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만나 십 수 년을 함께 했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그들은 유일한 동료에게조차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살았던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들 사이에는 사실상 진지한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것이다. 함께 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또 묻지도 않는 관계, 믿을 수 없는 타인과의 동거는 바로 전쟁이라는 참상이 준 상처이자 그로인한 정신적 외상의 한 양상인 것이다.

스승의 원수를 갚고, 생각하기를, ‘우리 세 사람은 아버 자식 같고 형제와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길에서 스승을 여의고 또 동쪽에서 온 삼천 명의 왜인 검객 가운데 우리 두 왜인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 천하

23) 後十年，嘗出游，其人覩而結扉係，一倭忽乘後拔劍，斷其頭，顧老僧曰：‘夫匪吾讐乎？今日得反之矣。吾二人，盍間行反諸日本？’老僧目見師遇害，狼發劍，亦立斷其倭頭。噫！老僧與其倭，俱倭耳，同師數十年，不知其日夜內懷陰賊心也。(654)

를 돌아보니 나 혼자뿐이로구나. 일본으로부터 바다 건너 만 리 땅, 낯선 곳에서 살아감에 또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니,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갈꼬?' 마침내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자살하고자 또 생각하기를, '나는 일본인이다. 동해에 뛰어들어 죽어야겠다.' 동쪽으로 가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큰 바다 물고기가 싸우고 있어 파도에 밀려 해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뛰어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올라 중이 되었습니다. 솔잎만을 먹으며 살기를 사십년,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매해 스승의 기일이 되면, 곡을 하여 실성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²⁴⁾

검승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스승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자신의 손으로 유일한 동족을 죽인 뒤 자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그는 이역 만 리 땅에서 혈혈단신으로 평생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러한 사건과 그 기억은 그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정신적 외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4. 이야기하기를 통한 상처의 치유

<검승전>은 객이 오대산에서 검승을 만난 이야기 속에 검승이 겪은 이야기가 내포된 텍스트이다. 검승은 사십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아버지, 형제와 다름없던 이들을 동시에 잃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적국에서 평생을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다. 스승을 지키기 못한 죄책감과 동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비극적인 상황은 그에게 자살까지 결행

24) 既報師讐，念：‘吾三人，若父子兄弟，一朝塗喪師，又劒倭東來三千，吾兩倭在爾，吾殺其一倭，顧天下一身已。日出限漲海萬里，居異國，又多畏，吾獨生何爲？’遂大哭，欲自殺。又念：‘我日本人也。投東瀛而死。’東走瀛自投，會海大魚鬪，鼓浪卷落海岸，不能再投。卽上五臺爲僧，食松葉四十年，不下山，每歲師死日，未嘗不哭失聲。(654)

하게 했다. 하지만 자살 시도도 실패하고 난 뒤 그는 솔잎만을 먹으며 산 속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검승은 객의 질문에 자신의 비밀스런 내력을 토로하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짓는다.

오오! 이 늙은이가 이러하나 같은 절의 스님들은 제가 외국인인 줄 모릅니다. 오늘 선비께서 그 평생을 한 번 드러내게 해주셨으니, 나이 팔십의 중이 어찌 왜인임을 밝히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 지었다. 다음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²⁵⁾

사십 여 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낸 같은 절의 중들조차 심지어 그가 왜인인 줄도 모른다는 점에서 검승이 자신의 내력을 철저히 숨겨왔음을 알 수 있다. 세속을 두고 출가한 스님들이 출가 이전의 삶을 모두 잊고 자 하기에 이전의 삶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애초부터 불가에 귀의할 뜻을 가진 것이 아닌 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대하는 타인들에게 순전한 자신으로서 대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들 사이에 온전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의사소통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선입견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객에게 검승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간직했던 자신의 정체와 지나간 삶을 모두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장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적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일,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 또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따라서 그 비밀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편안해지고 자신을 얽매었던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

25) 噫! 吾老於是矣, 全寺僧, 莫知吾外國人, 今日爲措大, 一露其平生, 八十僧, 焉用諱倭爲?” 言已, 夷然乃笑. 明日不知所之.(654)

터 벗어난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오대산의 암자를 비로소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존재론적 자유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검승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그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객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가능했다. 이야기함으로써 검승은 자신이 중이 아닌 검사라는 것, 조선인이 아닌 왜인이라는 것, 검사의 제자였지만 검사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자라는 것, 스승인 검사의 원수를 갚기는 했지만 그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동료로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낱알이 밝힌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드디어 그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검승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며, 이야기를 함으로써 객 앞에 하나의 주체로서 서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검승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때문에 쌓였던 분노, 그 분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몰라 전전긍긍했던 고통스러웠던 삶을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자기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던 검승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율성과 주체성의 상실이었다.²⁶⁾

이야기하기는 자신을 포함한 이야기 대상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당장에는 아픈 것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발견하게 한다.²⁷⁾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술잎만 먹으며 오랜 세월 고행을 했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질서를 부여하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되었다. 상처를 지닌 인간에게 있어 이야기하기는 치유의 기능을 갖는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세계 속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며 나아가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할 수 있게

26) 서경식 외, 앞의 책, 14쪽.

27) 칼 심스, 앞의 책, 84쪽.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며 이야기하기의 의의이다.

검승의 이야기는 검승 스스로를 아픈 기억으로부터 헤어 나오게 했고, 검승을 만난 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전쟁이 개인들에게 남긴 상처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나아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준다.

임진왜란을 직접 겪은 이들의 삶은 <검승전>이라는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자 과거로 지평을 넓히는 일종의 매개적 성질을 지닌다.²⁸⁾ 다시 말해, 역사는 과거 자체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교류하는 자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²⁹⁾ <검승전>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현재를 살았던 검승의 기억 속에 살아 있는 ‘흔적’들을 재작업을 통해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는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의 실재성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³⁰⁾

5. 정체성의 확립과 ‘교양’의 의미

내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정체성, 곧 자신의 동일성은 두 가지 차원의 동일성으로 이야기된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자체성으로서의 동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와 자신의 행동 자체의 시간적 차원과

28)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서정일 역,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2000, 31쪽.

29) 존 H. 아널드, 최생열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동문선 현대신서, 2003, 13쪽.

30) 그래서 리피르는 실제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야기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전형상화된 이해를 갖는 것과 특정한 이야기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재형상화할 수 있는 것을 매개하는 것을 플롯, 곧 줄거리 구성이라 하였다. 역사는 곧 역사 자체이면서 역사가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자 전유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칼 심스, 앞의 책, 178~180쪽 참조.

관련된 자기성으로서의 동일성이다.³¹⁾ 전자를 자체동일성, 후자를 자기동일성이라 하자.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동일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은 타인과 구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규명할 수 있다. 아버지와 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아닌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여성과 있을 때 나는 남성이지만 보다 남성적인 남자와 있을 때 덜 남성스러운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이것이 자체동일성의 차원이다. 자체동일성을 통해 나는 타인과 다른 나만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을 자신에게끔 하는 불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매 순간 또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동일성의 의미이다. 이 두 정체성에 관한 물음을 각각 '나는 무엇인가'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선생님이 된 홍길동에게, 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릴 적 학생일 때에는 선생님 앞에서 '학생입니다'가 될 것이고 후에 선생님이 되어서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입니다'가 될 것이다. 또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나는 홍길동입니다'가 된다.³²⁾

시간의 흐름과 흐름에 따른 변화에 종속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은 인간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을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낯선 것인 만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을 자신에게끔 하는 자기동일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

31) 폴 리코르, 김용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東文選, 2006, 157~169쪽 참조.

32) 물론 이 대답 속의 '홍길동'은 언표로서의 홍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언표 홍길동이 시간을 통해 획득하는 의미의 총합을 지시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다만 이는 자체동일성과 자기동일성을 이해하기 위한 편의상의 예이다.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다. 따라서 매 순간 자신과 다른 타인을 구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더 익숙하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또는 선택한 집단 속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자체동일성만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무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 확립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신과 다른 타인을 구별하는 데에 의미를 둘 때 문제가 된다. 물론 이러한 구별하기는 전술한 바, 자체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자신과 다른 그들을 틀렸다고 규정하게 될 때, 이것은 제거해야 하는 적을 규명하는 명분이 되고 사회적 갈등의 시작점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쟁이고 사회인 것이다. 임진왜란을 있게 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인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은 1591년 3월에 있었던 사행의 결과 보고 자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왜가 침략할 것이라는 서인 황윤길의 보고를 서인세력의 정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규정한 동인 김성일은 상반되게 보고했던 것이다. 나, 우리와 다른 저들의 견해는 틀린 것이라는 구별하기가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더디게 하였다. 결국 조정의 일치된 대외 정책 수립에 혼란을 주었고 뒤늦은 전쟁 대비는 왜의 기습 공격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별하고 배제하기의 폐해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나서도 계속되었으며 끝난 후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검사는 숨어 나오지 않아 공명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다. 왜 그랬는가? 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이들은 임진왜란의 변이 하늘로부터 받은 운수라 구구한 지력으로 가히 그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고로 지혜와 용기와 이술을 지닌 자들은 변을 면할 수 없었으니, 작은 나라야 더욱 심했던 것이다. 비록 조선의 경우에만도, 남이, 김덕령 등이 모두 이와 같았다. 고로 검사는 차라리 험준한 산속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찌 세상에 전해지는 두 사람, 백두은자와 초의객의 류를 만난 바가 아니겠는가? 그 이름과 성을 말하지 않은 것에 이를라치면, 더욱 기이하지 않은가!³³⁾

<검승전>의 서술자는 검사가 뛰어난 검술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기보다 산 속에 숨어 산 이유에 대해, 남이, 김덕령 등과 같이 '지혜와 용기와 이술을 지닌 자들이 변을 면할 수 없었던 조선의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 남이는 세조 때 등용되어 이시애의 난을 평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진족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고 김덕령은 광개우와 함께 권을 휘하에서 의병장으로써 왜구를 격퇴하였지만 모두 역모에 가담했다는 무고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인물들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무리가 아니라 생각되어지면 어김없이 배척당하고 제거되었던 것이니, 광해군의 사례를 보면 이는 왕가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었다.

그러한 조선사회의 현실은 검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갈 뜻을 거두는 직접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검사의 분노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왕이 왕답지 못하고 양반이 선비답지 못하여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는 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봉건적 유교사회의 조선인 선비에게 이런 상황은 감정적 분노를 넘어 존재론적 허무와 불안 의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조선 정치 현실을 깨닫고 비판할 정도의 인식을 갖춘 검사 역시 자신이 믿었던 제자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를 두고 서술자는 검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선포가 호랑이에게 먹힌 격이고,

33) 劍士伏而弗出, 不欲以功名自顯, 何哉? 彼有異術, 誠知壬辰之變, 天數也, 非區區智力可弭. 自古智勇異能之士, 多不免, 小國尤甚焉, 雖以國朝言之, 南怡金德齡皆是已. 故劍師寧老嵯巖, 而弗悔也. 豈世傳二子所遇白頭隱者·草衣客之流也歟? 至若不言其姓名, 尤奇矣哉!(654). 밑줄은 필자.

스승을 죽인 검왜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검사 역시 잘못이 있음을 『맹자』 離婁章句 下에 방몽과 예의 고사를 인용하여 논하고 있다.

방몽(逢蒙)은 예(羿)에게 활쏘기를 배워 예의 활 쏘는 방법을 모두 익혔다. 그러자 방몽은 천하에서 오직 예만이 자기보다 활을 잘 쏜다고 생각하고 결국 예를 죽여 버렸다. 이를 두고 맹자는 방몽에게만이 아니라 예에게도 죄가 있다고 했다. 제자가 선생을 배반했다면 그 책임은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칠 때는 제주보다 먼저 인간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덕이 있으면 서로 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⁴⁾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덕을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이다. 검사가 아무리 목숨을 살려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덕을 갖춘 인간으로서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소통해야 하는 것이다. 검사가 살려준 것은 절대적 우위에서 베푸는 일직적 온정에 불과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검사의 입장에서 행해진 것이지 검왜의 입장에서 고려된 것은 아니다.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덕의 실천이 아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좋은 관계가 나쁘게 돌변했다면 상대를 닦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이 덕이 있는 행위이다.

검사가 검승을 비롯한 삼천의 정예 왜군을 만났을 때 왜군들에게 그는 죽여야 할 적이었다. 잠시 후 검사가 순식간에 삼천에 가까운 왜군을 베었을 때 살아남은 두 왜군에게 검사는 삶과 죽음의 결정권을 지닌 절대적 존재였다. 하지만 십여 년 후 검승을 익힌 검왜에게는 여전히 죽여야 할 원수에 불과했고 반대로 검승에게는 스승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검사는 타인과의 변화되는 관계 속에서 매번 다른 모습

34) 윤재근, 『맹자, 나를 팔아 명성을 사지 않는다』, 도서출판 니들북, 2004, 130~132쪽.

의 정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를 검사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검사는 겁에 질려 항복하고 십여 년을 묵묵히 자신의 뜻에 따라 순순히 검술을 익히며 살았던 모습만을 보았던 것이다. 일관된 내면의 적심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검사와 검왜 사이에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검사는 두 왜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분노를 표출하며 스승과 제자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냈지만 그러는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성명을 이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고 달이 차오르면 혹 깎아지른 정상에 올라 칼춤을 추니 물 흐르듯 부드럽다가 변하여 바위를 내려치고 높은 소나무를 뺨으로써 분노를 폭발시키고야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과 이름을 말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³⁵⁾

마음 속 분노를 표출하는 가운데 서로 가장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을 법한 데도 이름마저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진정한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의 전제는 의사소통의 참여자들 모두가 대화 주체일 때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에서 타인은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서술자는 검사가 그의 성명을 말하지 않은 것을 백두은자, 초의객과 동류이기 때문이라 평가했지만, 이름도 말해주지 않는 의사소통의 참여자는 누구도 진실할 수 없다. 자신은 숨긴 채 타인에게만 모든 것을 밝히고 그 목숨마저 온전히 바치라고 할 때 두 대화의 당사자는

35) 秋深月盛，或登絕頂，舞劍器淋漓移時，擊石斷高松，怒洩乃止。然姓名不肯言。
(653). 밑줄은 필자.

진정한 의사소통에 이를 수 없다. 물론 검승의 경우처럼 그 뜻이 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매우 ‘기이한’ 일이다. 검승이야말로 ‘奇男子’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서술자가 논찬에서 인용한 선표의 고사 역시 새롭게 해석된다. 『장자』 외편 <達生>에, 노나라의 선표가 바위굴에 살면서 골짜기물만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고 살다보니 나이 칠십에도 동안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굴을 나섰을 때 선표는 오랫동안 굶주린 범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선표의 고사는 아무리 내적 수양을 열심히 하더라도 외적 상황에 적절히 처신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자신은 열심히 수양하였더라도 악한 현실에 의해 좌절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문제는 악한 외적 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표가 만난 굶주린 호랑이는 결코 악한 것으로 단정될 수 없다.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해 허기진 맹수에게 있어 나이 칠십에도 동안인 선표야말로 최고의 보양식이자 적절한 먹이일 뿐이다. 호랑이에게 있어 선표를 잡아먹는 행위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또 하나의 주체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관계 속에서 취했어야 할 적절한 처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함이 중요한 것이다. 검사의 비참한 결말은 검사가 검왜를 또 하나의 주체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서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조리한 정치 현실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지 않고 협기를 지닌 채 세상의 부귀공명을 바라지 않은 것은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세상을 주체로서의 타인으로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려 하지 않고 산 속으로 도피한 은둔자에 불과한 것이 또한 검사의 한계였던 것이다.

반면 검승은 자신과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밖에서 조망하게 된다. 그것은 우선 객을 더불어 말할 만한 또 다른 주체로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데에 자신 외에 타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 타인 역시 또 하나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인간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뿐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자기정체성의 확립인 것이다.

6. 결론

오늘날 소위 인문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많은 강의도 내용의 실상은 실용주의적인 것들이 많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구체적인 직업과 연관된 실용적 능력을 연마하려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적 사고방식이 가져온 놀라운 진보와 발전은 여기에 명분을 더해 주었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에 따른 진보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자유와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과학적 사고가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도리어 그로 인한 인간의 기계화와 야만화의 증거는 넘쳐나고 있다.³⁶⁾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신념, 이데올로기 등을 의심하지 않고

36) 서경식 외, 앞의 책, 24~42쪽 참조.

따르기만 할 때 인간은 노예가 되고 기계가 된다.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판단을 주체적으로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³⁷⁾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양인 것이다.

따라서 교양의 화두는 ‘자유’와 ‘상상력’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 ‘차별’이다.³⁸⁾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6세기 조선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차별이었다. 본격적인 주자 성리학의 전개와 함께 조선사회는 온갖 종류의 인간들로 나뉘고 있었다. 계급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당파에 따라 조선사회는 나누어졌다. 나와 다른 남을 구분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 필수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동일성에 경도되어 자신과 다른 타인의 무리를 구별하고 틀렸다고 배제하는 폐해를 갖고 오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검승전>의 서술자도 언급하듯이 왕과 왕을 둘러싸고 권력을 쥔 양반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민족적 위기에서 충심을 다해 큰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 관해 사고하지 않고, 즉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대상만을 바라볼 때 사실보다는 자신의 신념만을 주장하고 자신과 다른 타인을 틀렸다고 매도하게 된다.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 야만화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세계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일어날 일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현재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다

37) 서경식 외, 앞의 책, 30쪽.

38) 위의 책, 53쪽.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현재 관계를 맺는 타자뿐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무수한 타자와 연결된다.³⁹⁾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나와는 다른 문화를 살아온 나와는 다른 계급의 나와 다른 성별의 사람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친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반추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다.

임진왜란의 재구성된 이야기로서의 <검승전>은 이름 모를 검사와 검승의 이야기를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 가장 아픈 상처였던 그 전쟁의 근본적인 발발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검승전>은 조선사회의 적나라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 반성케 하는 윤리적 목적을 지니는 교양 텍스트인 것이다.

39) 동경대 교양학부 위음, 노기영 외 옮김, 『교양이란 무엇인가: 동경대 교양학부의 독서론 강의』, 지식의날개, 2012, 15쪽.

참고문헌

- <鶴山閑言>, 장서각 소장 『野乘』 21책.
<劔僧傳>,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사, 2005.
- 김종현, 『막스 쉐러 교양개념의 인간학적 의미』, 『汎韓哲學』 제18집, 47~67쪽.
동경대 교양학부 엮음, 노기영 외 옮김, 『교양이란 무엇인가: 동경대 교양학부의 독서론 강의』, 지식의날개, 2012, 1~200쪽.
- 박희병, 『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1~454쪽.
- 서경식·노마 필드·카토 슈이치 공저, 이목 역, 『교양, 모든 것의 시작』, 노마드북스, 2007, 1~214쪽.
- 손동현,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관계』, 『인문과학』 제37집, 203~231쪽.
- 윤재근, 『맹자, 나를 팔아 명성을 사지 않는다』, 도서출판 나들목, 2004, 1~320쪽.
- 이기현,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보고서, 1996, 1~523쪽.
- 정인혁, 『<劔僧傳>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16집, 2007, 197~225쪽.
- 정하영, 『<검승전>의 인물형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집, 2002, 93~123쪽.
- 존 H. 아널드, 최생열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동문선 현대신서, 2003, 1~177쪽.
- 칼 심스, 김창환 옮김, 『해석의 영혼 폴 리콥르』, 엘피, 2009, 1~272쪽.
- 폴 리콥르, 김용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東文選, 2006, 1~489쪽.
- S.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6, 1~228쪽.
-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서정일 역,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2000, 1~186쪽.

ABSTRACT

Overcoming Mental Trauma of War and the Meaning of 'Liberal Arts'
- Focusing on the <Geomseung-Jeon> -

Jung, In-hyounk

As a 'free man', human beings refuse to be subject to certain ideologies, religions, and principles. A man can have a moral qualities, moral characters and intellectual and emotional virtue through a education. This is called a liberal arts. Therefore, 'liberal arts' is the 'elevation of humanity' and is the 'free-will of the man.' On the other hand, the 'war' is the irrational behavior of human who are enslaved by the economy and politics, race and ethnicity, ideology and relig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rauma caused by war through <Geomseung-Jeon> of Seokbuk Sin, Gwangsu. Also I studied how the historical narrative heals the wounds and trauma caused by the war. In addition, I studied the meaning as a liberal art of <Geomseung-Jeon>.

<Geomseung-Jeon> is a retrospection of a monk, Geomseung who had participated in the Japanese invasion of Chosun Korea in 1592. He was a swordsman of Japanese army. There is the same story of Geomseung at <Haksanhaneon>, <A Bizarre Monk of Mt. Geumgang>. But a representation method of <Geomseung-Jeon> is different from <A Bizarre Monk of Mt. Geumgang>. In the case of <Geomseung-Jeon>, Geomseung is focalized by a certain person who is unsubstantial. On the other hand, in <A Bizarre Monk of Mt. Geumgang>, Geomseung is focalized by Maeng, Ju-seo who is a real person.

Therefore, the narrator of <A Bizarre Monk of Mt. Geumgang> records the story of Geomseung as Maeng, Ju-seo saw it. But, the narrator of <Geomseung-Jeon> reconstruct the story of Geomseung by making a unsubstantial focalizer, a fictional witness. Through the narrative, wounds of war that Geomsa and Geomseung experienced when the Imjin War is

vividly depicted in *⟨Geomseung-Jeon⟩*. In addition, by noting the ultimate cause of the wound through the story,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narrator were emphasized.

He, despite have excellent swordsmanship of ability, rather than raising the veterans in the war, were selected to spend hiding in the mountains. However, despite these selection, he did not eliminate anger. In addition, he is killed by another disciple that he helped.

This means his ontological anxiety. His ontological anxiety to expose the absurdity of the Korean society, which is located at the root of war. If society institutional attrition exclusion in distinction without an admission the independence of others, in such a society, it is difficult to expect a complete mutual understanding relationship. In summary, *⟨Geomseung-Jeon⟩* is the text of the 'liberal arts' to look back to that of the Korean social issues lurking behind the war through the story of Geomseung and the bizarre monk of Mt. Geumgang.

Key Words liberal arts, Imjin War, focalizer, identity, *⟨Geomseung-Jeon⟩*, communication

논문투고일 : 2015. 10. 6
심사완료일 : 2015. 12. 12
게재확정일 : 2015. 12. 15